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009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정초의 태양에 의미를 두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한해의 시작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 어제와 오늘은 다르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해 보내면서 아쉬워하고 한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가진다. 그렇다, 새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새해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아니 오히려 어둡다는 것은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한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나마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환율과 주식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동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게 얼어있어 우려된다. 이번 경제위기의 끝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동향을 보아서는 우리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 세계적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무너진 신뢰기반과 금융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 지구는 화석연료 등 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난제도 맞물려 있어서 거대한 혁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혁신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혁신 작은 변화도 이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혁신만으로도 부족하다. 사회가 위기를 공감하고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라 하여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극복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러나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이번 경제위기가 아니어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다.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은 경제 위기 하에서 오히려 증폭될 수도 있고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 우리의 갈등이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눌 것 자체가 줄어들면 감소될 수도 있겠지만 나눌 것 자체가 줄어들면 더 많이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인식하여야 할 것은 싸우면 싸울수록 나눌 것 자체가 감소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합의점이 가능한 빨리 도출되어야 한다. 국가에너지를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의 과정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과감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이 시급하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확대와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정책의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수급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욕구별 급여 확대, 복지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산층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 긴급의료 지원 확대, 실직가족 예방 및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대책 수립,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다

문화가정 및 미혼모 가정 지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복지전달체계의 내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누수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징수체계의 통합,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보건복지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의 절감 도모가 필요하다.

한편,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보건복지산업의 발전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해외환자 유치 등 신규의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체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 중소병원 현대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R&D 실용화 효율 증대를 통해 신약 등 조기실용화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열린 우리 사회도 이제 성숙함을 보일 때가 되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복지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모양새도 갖추어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가 아직은 다소 엉성하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3만 불 시대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우리 주변부터, 작은 것부터 챙겨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 보다는 꼼꼼히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소가 논밭을 갈듯이, 느리지만 부지런하게 보건복지라는 큰 평야를 어깨동무하고 일구어 나가자.